

닭 많은데 鳳凰이 있다.



조용환 편집장
축산신문사

“닭이 천(千)이면 봉(鳳)이 한 마리”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닭이 많은 곳에는 봉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닭이 천 마리가 있던지 만 마리가 있던지 닭은 닭일 뿐이지 어떻게 고대 중국의 산해경

(山海經)에 나오는 상상의 새 봉황<수컷=봉(鳳)·암컷=황(凰)>이 될 수 있겠는가.

전설속의 봉황은 그 생김새가 머리는 닭처럼 생겼다 한다. 그럴지라도 깃털무늬가 5색이며, 울음소리도 5음을 내며,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상서로운 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도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간혹 적용되고, 일정부분 일맥상통한다.

지난달 1주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의 경우 상위 입상한 한우들은 그 족보가 확실했으며, 한우인의 애축심 제고에 기인하겠으나 이 못지않게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또는 많은 두수를 관리하는 조합에서 출품된 한우들이 속속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이석래)의 경우 지난해 대회까지 2년 연속 국무총리상을 거머쥘

었다.

따라서 97개팀에서 1백94두가 출품된 올해 대회에서 또다시 상위 입상을 하는 것은 확률로 볼 때 힘들 것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그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평창영월정선축협은 종합점수에서 1등과 1.05점의 근소한 차이로 이깝게 3년 연속 국무총리상은 놓치고 3위적인 최우수상(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을 차지했다.

또한 조합의 직원들이 컨설팅 하는 평창의 현식목장(대표 김현식)이 이번 대회 2위적인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을 나란히 차지한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왜냐하면 평창영월정선축협이 관리하는 한우암소는 2천여두를 상회하고, 그 우량 암소에 계획교배를 통해 생산된 송아지 가운데 선발된 개체들이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7명의 컨설팅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고급육 프로그램을 조합원이 준수토록 하고 있다.

김현식대표 역시 평창영월정선축협을 통해 구입한 등록우를 철저하리만치 고급육 사육프로그램을 준수하며 사육한 결과의 소산이다.

대관령한우는 평창영월정선축협의 조합원과 임직원이 국내 최고 한우고급육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신념과 노력이 충만해 있으며 그 사육두수 또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열릴 한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은 한우개량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우사육에 대한 열정 또한 뜨거워 육질과 육량을 모두 향상시킨 한우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많은 두수를 체계적으로 사육한 지역에서의 상위 입상 확률은 그에 상응하게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상위입상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대회 최고 영예의 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전북 장주소재 남양목장(대표 강성선)도 한우 80여두를 사육하면서 소를 자식 돌보듯 정성을 다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은 한우개량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우사육에 대한 열정 또한 뜨거워 육질과 육량을 모두 향상시킨 한우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많은 두수를 체계적으로 사육한 지역에서의 상위 입상 확률은 그에 상응하게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10년이면 강산(江山)이 변 한다”는 속담이 있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1993년 1회 대회를 치렀지만 대회 초기에 2년에 한 번씩 치룬 관계로 내년이 되어야 10회째를 맞이한다. 헛수로 따지면 14년이 되는 셈으로 강산이 한번 반 정도 변한 셈이다. 특히 21세기는 오늘 있었던 산도 몇 달 후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설지 모르는 등 1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산이 바뀌는 디지털시대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닭이 많은 곳에는 봉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위 입상을 한번 공략할 농가라면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한 체계적인 개량과 동시 지역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한우사육기술 터득과 사육두수를 확대해볼 일이다.

아무튼 제9회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이제 폐막되어 앞으로는 내년에 열릴 제10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회에 출품될 대상우는 모두 선정 됐다한다.

그렇지만 이 대회는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산실이고 잭대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이웃 일본의 화우공진회 못지않게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사업의 주인인 한우농가의 노력과 관련단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